

보도시점 2026. 5. 22.(금) **배포시** 배포 2026. 5. 22.(금) 17:30

농식품부, 호우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 농진청, 지방정부 등 참석 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담당부서(식량, 축산, 유통),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5개 도 및 농협중앙회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5월 22일 호우 대비 긴급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월)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유입되어 26일(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특히, 남부지역은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관리,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하우스 등 시설물 및 산사태 대응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분야별·작물별 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2872)